



여름호

통권 제48호 (2013. 6)

A Mesmerizing Land of Opportunity

GFEZ Journal

A Quarterly Journal of Gwangyang Bay Area Free Economic Zone



20



30



19



33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 ! 최고의 비즈니스 파트너 !



편리한 교통인프라

동북아 시장의 관문으로 항만·항공·도로·철도 등
편리한 접근성



최적의 산업인프라

POSCO광양제철소, 여수국가산업단지(석유화학) 등
풍부한 산업단지



최대의 인센티브

다양한 세제혜택과 보조금 제공



우수한 정주환경

최적의 주거·교육·의료시설 및 풍부한 관광자원



Gfez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545-808 전남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100 / Tel. 061)760-5114 / Fax. 061)760-5711

CONTENTS



CEO Column

- 04 “광양만권발전협의회” 지역상생의 밑거름 되어야 한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이희봉

Highlights

- 06 주요활동사항
_ 신대배후단지내 명품거리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박차
_ 광양경제청, 「입주기업 우수 생산제품」 책 한권에 담았다
_ 광양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MOU체결 및 세미나 개최
_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입주기업 대표와 소통

Spotlight

- 10 GFEZ 보고서 해양플랜트전문기업협회 투자유치 성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장 제윤익
12 Interview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 자문위원
후지이히로유키
16 특별기고 3.0 창조경제의 시작은 광양만권에서
GFEZ조합회의 의장 이용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활성화 과제
한국무역협회 전무이사 김무한

Invest in GFEZ

- 20 화양지구 동북아의 해양관광허브 GFEZ
22 율촌지구 철강·석유화학 등 최적의 산업 Cluster 구축
24 For GFEZ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방안
순천대학교 장흥훈 교수

GFEZ News

- 26 GFEZ Photo News
28 GFEZ 주요기관 소식

Community News

- 30 명인명소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32 문화탐방 광양4대계곡 금천·어치·성불·동곡
34 기업탐방 Dimensionally Stable Anode(DSA)
제조 전문기업 I주 KOELECTRODE

GY Port

- 36 광양항 항로 현황

발행인 : 이희봉(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편집인 : 장흥훈((사)광양만권발전연구원 연구소장)
발행처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061-760-5031~4)
편집처 : (사)광양만권발전연구원(061-761-1155)
디자인·인쇄 : (주)가화(062-611-5611)
간행물 등록번호 : 전남 마00020

“광양만권발전협의회” 지역상생의 밑거름 되어야 한다

21세기는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이른 바 세방화(Glocalization) 시대이다. 그 지역의 개성과 잠재력을 토대로 한 지역의 대외 경쟁력 강화는 이 시대의 핵심과제가 되었으며 상생발전 협력방안은 매우 중요한 현안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경제권 구축과 발전의 주요 내용도 지역 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살리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이미 선진 국가들은 지역발전에 있어 포괄적 개방적 트렌드에 의한 신지역주의에 대응하여 지역들을 연계한 광역발전정책을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의 사례를 보면, 프랑스 정부는 1966년 12월 31일 법령제정을 통해 대도시 연합공동체를 제도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최초로 네 개의 대도시 연합공동체를 출범시킨 이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대도시 협력체를 구성하고 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지역 발전논리에 있어 지역 간 ‘경쟁·갈등형’ 구도에서 ‘협력·소통형 지역 상생발전’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고 이에 따라 인근 지자체간, 각 도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내지역과 해외도시 간 협력을 통한 상호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내외 지역 간 연계협력을 통한 상생 파트너십 구축의 성공사례로서는 부산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부산은 부산항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부산항발전협의회” “부산항 경쟁력 촉진 협의회”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 등 민·관단체 네 다섯 개가 일찍이 조직되어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지역의 현안 문제들이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지역정책에 반영되고 있고, 중앙정책에 건의되고 있다. 부산지역 사회적 자산(Social Capital)인 네트워킹과 거버넌스가 발달되어 있다는 증거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경제권 구축과 발전의 주요 내용도 지역 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살리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이미 선진 국가들은 지역발전에 있어 포괄적 개방적 트렌드에 의한 신지역주의에 대응하여 지역들을 연계한 광역발전정책을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다.

부산은 해외 도시와의 연계 협력도 활발하다. 예를들어 부산시와 후쿠오카시는 2009년 8월 28일 동북아 최초로 23개 추진사업에 대해 국경을 넘는 초광역 경제권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고,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과 후쿠오카 중앙도매시장간 자매시장 제휴를 시작으로 중소기업 CEO 포럼 운영, 수산시장 교류 촉진, 공동 브랜드 창설 등 경제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나아가 부산과 후쿠오카시는 두 도시 간 경제협력을 한국의 동남권과 일본 큐슈지역의 경제협력으로 확대시켜 나간다는 거시적인 계획까지 가지고 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이희봉

그 동안 우리 광양만권 지역은 지역간의 연계와 상생을 촉진할 수 있는 매개체가 발달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늦었지만 다행히 광양만권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공감대 하에 우리 광양만권에서도 여수·순천·광양시와 유관기관이 지역 간 우호증진과 상호발전 협력방안 모색을 위하여 지난 1월 31일 “광양만권발전협의회”가 발족되었다. 협의회는 여주시, 순천시, 광양시 지자체장과 지역상공회의소회장,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여수광양항만공사사장,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등 9개 기관 단체장으로 구성 운영된다.

협의회는 항만과 지역발전을 위한 대정부 건의, 지역 현안 협의, 관련기관 단체 간 정보교류 및 공감대 형성 등 지역발전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협의회 운영 주관은 각 기관이 윤번제로 하게 되며 2개월마다 한차례 정례회를 갖는다. 협의 의제는 지역발전에 관련된 사안으로 하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분야별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우리청 주관으로 개최된 지난 4월 24일의 두 번째 정례회인 간담회에서는 최근 해양수산부가 지금까지 일관되게 유지해온 광양·부산항 중심의 투포트 항만정책에서 사실상 부산항 원포트 계획을 내세운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졌으며, 앞으로 중앙정부의 관련 정책에 공동 대응하여 ‘광양항 살리기’ 방안을 마련하여 나가기로 중점 논의하였고, 또한 광양만권 기업유치를 위한 공동협력 마케팅의 적극적인 추진 등 현안들이 논의 되었다.

앞으로 지역 연계발전을 위한 다양한 민·관단체들의 활동이 활성화되어 지역사회의 자산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또한 여러 모임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지역인재 육성 등 현안 해결을 위한 방안 등이 모색되어야 이지역의 경제와 정치발전이 기약 될 수 있을 것이다. “광양만권발전협의회”의 발족은 광양만권의 연계협력과 상생 파트너십 구축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를 계기로 자치역량 강화와 획기적인 상생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지역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주민의 관심과 성원, 그리고 기관·단체의 노력이 어느때 보다도 필요한 시기다. **GFEZ**

신대배후단지내 명품거리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박차

아름다운 디자인 건축물 설계·광고물
제작설치 비용의 50% 지원

차양 및 광고물 정비

연속된 테라스 조성
으로 가로폭의 폭성 부여

충분한 보행공간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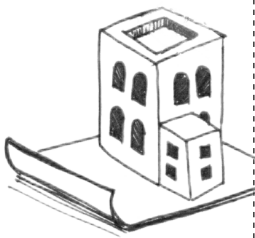
광양경제청에서는 한국디자인진흥원(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주관 디자인 개발사업에 선정되어 조성된 신대배후단지 내 명품거리 주변을 자연과 사람, 건축물이 어우러는 품격있고 쾌적한 거리로 조성하기 위하여 아름다운 디자인 건축물과 간판제작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약 770m에 이르는 명품거리에 인접하고 있는 대지에 2012년 ~ 2013년 건축허가(준공)된 건축물과 간판 중 연중 수시 신청받아 청 건축위원회에서 심사·선정된 아름다운 건축물과 간판에 대하여 건축 설계비, 간판 제작·설치비의 50%를 지원하게 된다.

명품거리 주변을 보행자 중심의 푸르름이 가득한 가로공간인 녹도의 개념을 도입한 웰빙도로와 1층 층고가 4.5m, 투시형 벽면, 전면공지에 테라스를 연속적으로 설치하는 등의 저층부를 활용한 상점들이 들어서면, 서울 덕수궁과 경향신문사의 길로 낭만이 가득한 정동길과 분당의 백궁길을 합하여 놓은 것과 같은 찾아오고 싶은 거리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신도시의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는 간판에 대하여 건축물과 조화가 되고 올바른 광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과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건물 외관, 색채, 조경, 지붕 등의 세부적인 명품거리 주변 건축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며, 가이드라인에 맞춰 건립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시공회사 등 관계자를 모시고 세미나를 개최하고, 지역 건축사와의 간담회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광양만권자유구역청에서는 명품거리 주변을 시작으로 점차 신대배후단지 전체 사업 확대 해 나갈 계획에 있으며, 아름다운 건축물 설계비 및 광고물 제작·설치비용 지원 사업을 통하여 신대배후단지 이미지 향상과 명품거리의 관광자원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GFEZ**



광양경제청, 「입주기업 우수 생산제품」 책 한권에 담았다

51개 기업 생산제품 정보·사진, 특허·기술인증서 등 수록



광양경제청은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입주기업
을 널리 알리고, 기업 상호간 거래촉진을 통해 판로 확대에 기여하고자 「입주기업
우수 생산제품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책자에는 현대하이스코(주), 라인호(주) 등 51개 업체의 생산제품을 세련된 디자
인으로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수록 하였으며, △회사현황, 연락처, 홈페이지 주
소 △사진을 곁들인 생산제품 설명 △특허·기술인증서 등의 다양한 정보를 담
고 있다.

또한, 생산제품의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판로개척에 도움을 주고, 물품구입·공
사·용역 발주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조
달청 △산업통상자원부 △타 시도 경제자유구역청 △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
공단(지역본부, 지사) △테크노파크 등 유관기관·단체 및 은행 등 300여개소에
2,000부의 책자를 제작·배부하였다.

정인화 광양경제청 행정개발본부장은 “서로 이웃해 있는 입주기업간에도 정확한
생산제품 현황을 몰라 타 지역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등 상호 거래가 어렵다는 기
업의 애로사항을 접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책자를 제작하게 되었다”며 “타 산업
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에도 홍보하여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기업체
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영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
혔다. **GFEZ**



광양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MOU체결 및 세미나 개최

글로벌 항만 발전을 위한 정책발굴 및 투자유치
활동 적극 협력



광양경제청은 광양항 경쟁력 강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4월 25일(15:00)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광양시, 여수광양항만공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상호업무협력 MOU체결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를 통하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을 비롯한 광양항 관련기관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공동으로 광양항을 글로벌 항만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발굴, 물동량 및 투자유치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상호업무협력 MOU체결에 이어, 광양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유치방안,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개최된 물류심포지엄('13. 3. 21.)에 대한 결과보고와 '13년도 광양항 통합마케팅 활동에 대한 설명, 광양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세계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국내외업체의 투자유치 활동과 물동량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청을 비롯한 광양항 관련기관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광양항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GFEZ**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입주기업과 소통

GFEZ 입주기업 ‘소통의 날’ 정례화 계획



지난 4. 15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이희봉 청장과 GFEZ 관내 기업인 (주)SNNC 대표(김학동)가 만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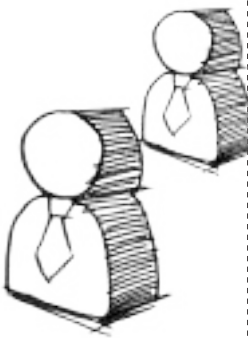
이희봉 청장은 “(주)SNNC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안정적 성장 속에 발전하는 우량기업으로서 고용창출과 매출확대를 통해 광양만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면서 “기업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고 기업인이 진정한 주인인 경제자유구역청 문은 활짝 열려 있으므로 소통하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주)SNNC 김학동 대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2기 공장건설에 있어서 인허가 등을 신속히 처리하여 준데 감사하며, 차질 없이 건설하여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되겠다”는 뜻을 전했다.

SNNC(주)는 국내 유일의 페로니켈(Ferro-Nickel) 생산 공장으로써 프랑스령국가인 뉴칼레도니아(New Caledonia)의 니켈광석 수출회사인 SMSP와 페로니켈 소비업체인 Posco합작으로 설립된 회사로 원료공급 및 생산제품의 전량 포스코 납품 등 안정적인 사업구조를 갖고 있다. 작년에 3,780억원의 매출을 올린 바 있으며, 금년 6월에 착공하는 2기 공장이 내년 말 완공되면 2015년에는 연 8,000억원 이상의 매출이 기대된다.

한편, 광양경제청은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와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GFEZ 입주기업 「소통의 날」을 정례화 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전직원이 분기 1회 1기업씩 찾아가는 1기업 1도우미제와 청장이 매달 기업을 찾아가는 현장방문의 날 운영을 통하여 기업과의 스킨십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GFEZ**



하동지구 해양플랜트전문기업협회 투자유치 성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장 **제 윤 억**

66

최고의 해양플랜트 클러스터 구성과
해양플랜트 관련 기업을 집적화 하는데
유리한 입지를 마련

99



GFEZ 5개 지구 중 하동지구는 2003년 10월 30일 GFEZ로 지정된 후 하동군 금남면, 금성면 일원의 총 면적 12.17㎢로 2007년부터 2020년까지 갈사만조선산업단지, 대송산업단지, 두우레저단지, 덕천에코시티의 4개 단지로 해양플랜트 및 조선산업과 금속가공산업, 주거, 업무, 관광, 레저 등의 복합산업기능을 담당할 단지로 조성되고 있다.

금번 우리청에서는 하동군, 하동지구개발사업단 등이 참여한 가운데 4월 29일 (사)한국해양플랜트전문기업협회(회장이규태)와 1,000억원 투자 업무협약 MOU를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갈사만조선산업단지 육지부 165,000㎡(5만평)에 플랜트협회 회원사 15개사, 1,000억 이상의 투자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사)한국해양플랜트전문기업협회는 2012년 3월 9일자로 (현)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허가받은 비영리법인으로 해양플랜트산업 및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제반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며 현재 150여개의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유일의 해양플랜트 전문기업단체이다.

이번 투자협약은 우리청이 지난 2012년 8월 플랜트협회를 방문하여 협회 회원사에 하동지구 투자요청을 시작으로, 2012년 11월 14일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12 국제 조선해양산업전」에 참가하여 GFEZ 홍보관 설치, 투자설명회를 가지면서 진행이 가속화 되었다. 지난 4월 29일 플랜트협회와의 투자 업무협약 체결에 이어 5월 24일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개최된 「2013 경남 투자유치설명회」에서 플랜트협회 회원사인 태광중공업(주), 대명PCM(주), 미래인더스트리(주)와 개별기업 투자협약 MOU를 체결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었다.

동 3개사는 2016년까지 갈사만조선산업단지 3만평, 투자금액 300억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150명 이상의 신규고용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청에서는 올 하반기부터 개별투자기업들과 본격적인 분양계약 체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4월 29일 플랜트협회와 체결한 투자 업무협약서에는 갈사만조선산업단지 투자정보 교환 및 투자기업 발굴과 알선, 투자기업에 대한 입주지원 및 각종 인허가 행정지원, 분양가격과 부지조성 시기 조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청과 하동군은 이번 (사)한국해양플랜트전문기업협회와의 투자유치 협약 체결에 따라 최고의 해양플랜트 클러스터 조성과 해양플랜트 관련 기업을 집적화 하는데 유리한 입지를 마련함은 물론 향후 더욱 활발한 기업투자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2015년 갈사만조선산업단지의 조성이 완료되어 대우조선해양(주) 등이 입주하면 고부가가치 해양플랜트 산업, 조선기자재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갈사만조선산업단지가 GFEZ 하동지구의 중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 자문위원 후지이히로유키(藤井 裕之)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자문위원으로 활약을 하고 계신데, 간단히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후지이 히로유키(藤井 裕之)입니다. 저는 사단법인 오사카능률협회의 아시아·중국 사업지원실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아울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GFEZ)의 투자유치자문위원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난 몇 년간 일본기업 및 경제단체 관계자들의 광양만권 산업현장 시찰과 광양경제청의 일본지역 IR활동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러한 활동에 대한 공적을 평가 받아서 금년 1월에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여 받았습니다.



제가 소속된 (사)오사카능률협회는 오사카부의 외부단체 중 하나로 일본 최초의 능률단체입니다. 매년 아시아 전역에 행정·경제특구·기업 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오사카능률협회에서는 지난10년 동안의 산업시찰을 집대성하여 아시아지역의 최신 투자유치 상황을 모은 「격동하는 아시아를 가다 - 중국 리스크의 분산처를 찾아서-」라는 책을 올해 3월에 출간하였습니다. 이 책은 아시아·중국사업지원실이 중심이 되어 일본의 아시아지역 전문가 40명이 아시아 20개국의 투자유치 환경에 대해서 서술한 것입니다. 저는 한국 부분을 집필하였고, 그 안에 광양만권을 소개하였습니다.

아시아의 투자유치지 선택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후지이위원은 5년 전부터 일본기업의 산업시찰단을 인솔하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계신데, 광양만권에 대해 어떤 인상을 받으셨나요?

저는 광양만권이 지리적 우위성을 가진 매력적인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일본의 임해공장지대는 이미 포화상태인데 반해 광대한 면적의 광양만권을 직접 방문해 보고, 한국은 아직 이런 부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사실과 매년 광양만권을 방문할 때마다 급속하게 개발이 진행되는 광경을 직접 목격하며 역동적인 발전상에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광양항의 취급 물동량은 일본의 고베항보다 많고, 부산항 단일 물동량이 일본의 모든 항만의 물동량을 합친 것보다 많다는 사실에 더욱 놀라게 됩니다.

지난해 여수엑스포를 통해 교통인프라가 크게 정비되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일본에서 광양으로 직접 가는 항공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여수공항이 국제공항으로 승격되어 일본 직항편이 생긴다면 일본기업의 관심도 크게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항공, 항만 인프라가 충족되면 광양만권의 매력에 더 빛을 발할 수 있겠지요.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기업하기 쉬운 지역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에 우수한 글로벌기업을 유치할 수 있겠습니까?**

일본은 엔저와 연동해서 일본 수출기업의 주가가 급속도로 상승하고, 해외 자본이 대량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 일변도였던 투자에서 중국 이외의 투자 대상지역을 찾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기회로 삼아 아시아 각국의 투자유치 활동은 빠르게 활발해지고 있고 각국의 재계 총수들이 일본을 방문하여 IR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광양만권에 투자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의 총수와 GFEZ 청장님이 공동으로 일본에서 톱세일즈의 투자유치활동을 추천합니다. 또한 일본기업이 단독으로 GFEZ에 투자를 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한국기업과 합작하거나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에 있어서 일본의 대기업과 한국 대기업간의 합작으로 제3국 인프라 구축과 공동사업의 제조기지를 광양만권에 유치할 것을 추천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한국과 일본의 업종별 기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기술상의 장점을 상호 보완하여 연계의 끈을 잇는 것이 좋겠습니다.



● **지금부터 한일간 FTA가 진행되는 등, 경제협력이 계속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일본기업이 광양만권에 투자하면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본은 이제부터 해양자원(에너지, 광물자원 등)의 활용이 빈번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소위 일본의 중후장대산업(철강, 조선, 발전 등)이 다시 각광을 받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일본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마침 광양만권이 갖고 있는 지리적 우위성과 산업 인프라와 일치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광양만권은 철강, 조선, 에너지 등의 산업유치에 중점을 두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일본에도 국제경제특구를 개발할 비전이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속에서 향후 한일간 경제특구 연계에 따른 상호 이점도 나타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에 관심이 있는 기업 또는 투자하고 싶은 일본기업에게 어떤 조언을 하시겠습니까?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민주주의가 진행된 나라로, 민족적으로도 일본과 가깝고 일본과 비슷한 상거래 관습 및 서플라이 체인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GFEZ는 아시아에서 지리적으로 최적지에 해양과 인접한 광대한 토지의 경제자유구역이며, 세계의 유수한 다국적기업이 주변에 있습니다. 특히 지진과 해일도 없고 토지, 전력이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의 경제자유구역 중에서는 한국산업의 약점으로 지적되는 소재산업 강화에 중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예전의 일본경제성장 시대를 방불케 하는 개발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남해안 선벨트의 개발 구상도 진행 중입니다. 일단, 스스로 GFEZ를 확인해 보십시오. 예전의 경제성장 때의 일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조언하겠습니다.



66

한일 연계를 통한 제3국 진출로

그 나라들로부터 존경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거기에 성공사례가 늘어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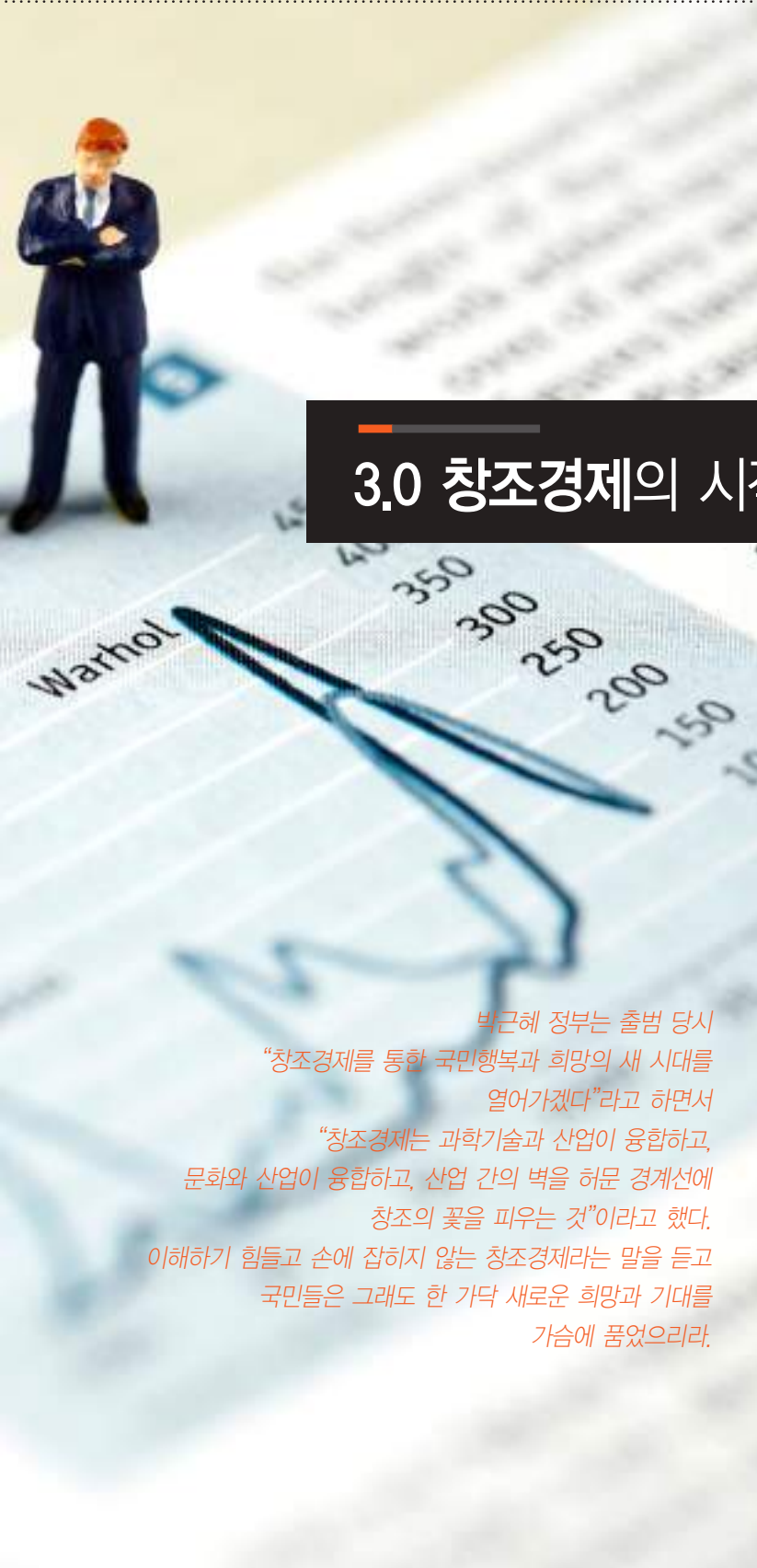
한일 양국관계가 비약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99

● 마지막으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또는 한국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세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관계자 여러분, 저는 GFEZ 3대 청장 때부터 인연이 되어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한국 분들과 교류하며 더욱 친밀해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정부 관계자들에게, 한 사람의 일본인으로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일 연계를 통한 제3국 진출로 그 나라들로부터 존경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거기에 성공사례가 늘어나면, 한일 양국관계가 비약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광양만권에서 그러한 목표를 향하여 첫발을 내딛고 나갈 수 있다면 더 없는 행복일 것입니다.





3.0 창조경제의 시작은 광양만권에서

박근혜 정부는 출범 당시
“창조경제를 통한 국민행복과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가겠다”라고 하면서
“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 간의 벽을 허문 경계선에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이라고 했다.
이해하기 힘들고 손에 잡히지 않는 창조경제라는 말을 듣고
국민들은 그래도 한 가닥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가슴에 품었으리라.

올해로 9주년을 맞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개청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수도권과 원거리에 위치하고 각종 사회간접 인프라가 열악해 기업 투자환경과 개발여건 등이 불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광양청 컨테이너 16선석이 완공되었고, 국내외 기업 133개사 120억불의 투자유치 성과를 이끌어 냈다고 하니 지역구 도의원이자 경제청 의회의장으로서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신정부의 광양만권 미래 소재산업 육성계획에 맞춰 석유화학 소재, 철강연관, 항만물류의 3개 분야를 핵심 유치업종으로 선정하고, 관련 프로젝트를 수립하여 중장기 국가정책에 반영을 통한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석유화학과 철강 연관 산업이 연계하여 산업 간에 핵심기술을 나누고 융합하여 가치사슬(Value chain)을 형성해 미래형 소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GFEZ 3.0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니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과학기술과 산업 간에 벽을 허물어 핵심 프로젝트를 만들고 미래가치를 창출

GFEZ 조합회의 의장

이 용 재



하여 GFEZ 3.0 창조경제를 완성해 나갈 것인지 2가지 사항을 당부하고자 한다.

첫 번째, 과학기술과 감성의 융합시대에 걸맞는 창조적 상상력이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진시황릉에서 사람들이 일일이 손으로 만든 8천 여 개 ‘병마용 도기 인형’을 보고 난 후, 보석을 손으로 깎은 듯한 디자인으로 맥북에어를 제작했다는 일화가 있다. 창조적 모방이자 상상력의 융합...

우리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것이라도 다듬고 정리하여 쓸모 있게 만들어 놓아야 가치가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광양만권에는 여수석유화학과 광양제철에서 나오는 기초 원자재를 활용하여 산업용 신소재의 연구개발(R&D) 및 기술지원, 생산 등을 아우르는 미래형 신소재 융·복합 시험연구센터와 같은 컨트롤타워 기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또한 1~2년 내 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입주가 가능한 울촌·해룡·세풍·황금산단이 있어 입지여건이 좋아 경쟁력도 충분하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동차 경량화 소재, 우주항공 발사체 무게를 줄임으로써 발사비용과 비행시간을 줄이는 초경량 탄소소재 등을 연구개발하고, 연관기업들은 기술지원을 받아 신소재 제품화를 통해 새로운 시장가치와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것이 과학기술과 산업간의 융합을 통한 GFEZ 3.0시대의 완성이자 창조경제의 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둘째로, 미래 소재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솔루션(Solution)을 확보하고 투자자본의 유입을 확대하는 것이다.

IBM을 설립한 토마스 왓슨 시니어와 주니어는 “기업이 갖고 있는 최대의 자원은 고객이고, 고객의 입장에서서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했다.

미래 신소재산업 육성은 기업 입장에서 보면 미래 투자 가치가 분명히 있다. 단지, 탁월한 아이디어와 더불어 중장기 국가정책에 반영되어 예산을 지원 받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갖추어진다면 더욱 좋겠다.

새로운 도약의 10년을 준비하는 GFEZ!

역사적인 소명의식을 가지고 계획수립 단계부터 철저히 준비해 주길 바란다.

얼마 전 가수 싸이가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가수로서의 도전과정, 음악관, 성공이야기 등을 강연하였는데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들이 내 노래와 공연을 즐긴다는 사실이 기쁘고 놀랍다면서 나 스스로 최고였다고 말할 수 없지만, 가수로서 살아온 지난 13년간 최선을 다해왔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해 관중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고 한다.

광양만권의 ‘미래형 신소재산업 육성’에 기반한 소비자들의 감성과 가치가 깃든 제품을 개발하여 국내외 자본시장을 형성하는 GFEZ 3.0시대를 열고 창조경제의 꽃을 활짝 피우기 위해서는 주어진 책무에 대해 최고와 최선을 다한다면 불가능한 일도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하면서 광양만권 주민과 전남도민,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환하게 웃는 그날을 기대해 본다. **GFEZ**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활성화 과제

세계 최고수준의 산업·물류·관광 중심도시 건설이라는 야심찬 비전을 가지고 출범한 광양만 경제자유구역(GFEZ; Gwangyang Bay Area Free Economic Zone)이 올해로 9주년을 맞았다. 최고의 기업환경 및 생활여건 조성, 동북아 해운물류 기지로의 육성, 투자자의 관심과 성향에 따라 개발이 가능한 ‘맞춤형 개발’ 등의 슬로건을 내세운 광양만경제자유구역은 그 동안 국내외 자본 120억 달러를 비롯해 133개 기업을 유치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성과를 올렸다.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에 따르면 광양항의 수출액 역시 2004년 100.7억 달러에서 지난해에는 281.2억 달러로 약 2.8배 증가했으며 컨테이너 처리실적도 같은 기간 59.7% 증가하는 등 수출기지향으로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광양만경제자유구역 지정 초기 내세웠던 투자 유치 250억달러, 고용 창출 24만명, 매출액 180조원, 물동량 연 1,200만TEU, 상주인구 12만명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광양항 물동량이 정체되고 항만 배후단지개발이 아직 부진한 상황에서 실현 가능한 전략을 하나 둘씩 세워나가야 한다.

한국무역협회 전무이사

김 무 한



광양만권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광양항 처리 물동량을 지금보다 크게 늘려야 한다. 지난해 광양항 컨테이너부두의 하역능력은 540만 TEU인데 반해 실제 처리된 물량은 215만TEU로 약 40% 수준에 그쳤다. 이는 자립기반 적정 처리수치인 300만TEU에 훨씬 못 미치는 실적이다. 광양항 화물 처리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기선 운항 서비스와 부대서비스 제고를 통해 광양항 이용 화주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급선무다.

두 번째로 광양항의 배후단지 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이다. 세계 유수의 항만들은 단순히 화물처리 뿐만 아니라 유통·가공·제조 기능 등을 수행하는 배후단지내 종합경제 클러스터를 조성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있다. 광양항 역시 항만배후단지와 배후산업단지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종합경제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항만물동량 창출 및 고부가가치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다가올 동북아 FTA 시대를 대비한 한·중·일 물류 네트워크의 구축이다. 현재 우리 정부는 한·중 FTA와 한·중·일 FTA 협상에 적극 임하고 있어 향후 동북아 지역에서의 FTA 효과를 광양만으로 끌어오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한·중·일 공동물류센터 건립, 한·중·일 상호운행 가능한 운송 시스템 및 물류인프라 구축을 착실히 준비해 나아가야 한다.

세계 주요국의 성공한 경제자유구역은 전 세계 투자자들이 선택할 수 밖에 없도록 하는 차별화된 정책과 지원책을 갖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광양만경제자유구역을 크게 글로벌 거점과 지역 거점으로 나누어 글로벌 거점에 대해서는 국제적 연계협력을, 지역 거점에 대해서는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에 초점을 맞춰 활성화 전략을 수립·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름 그대로 환한 빛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광양만(光陽灣)을 기대해 본다. **GFEZ**





동북아의 해양관광허브 GFEZ

화양지구

여수 화양면 일원에 위치한 화양지구는 해상국립공원과 연계한 관광·레저 및 스포츠 등 종합리조트 단지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을 목표로 골프아일랜드, 마리나비치, 포레스트벨리, 힐탑, 마운틴탑의 5개 테마구역 9.99km²(육지부 9.79km², 공유수면 0.20km²)를 2015년까지 1조 4,435억원이 투입되어 국제적인 관광레저와 해양스포츠, 휴양기능을 갖춘 복합 레저단지로 개발된다.

GFEZ 화양지구는 “해양관광레저단지” 조성을 목표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사업시행자인 일상해양산업(주)은 도시관리계획,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변경과 산지전용허가를 득하는 등 성공적인 화양지구개발을 위해 그동안 빈틈없이 준비해 왔으며, 2007년 12월 29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사업진행이 가속화되고 있다.

화양지구는 2003년 10월 30일 재정경제부로부터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아 2004년 7월 5일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중 최초로 민간기업인 일상해양산업(주)이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었으며, 일상해양산업(주)은 개발부지 총 면적 9.99km²에 약 1조 4,435억원을 투자하여 마리나, 골프장(36홀), 세계민속촌, 아쿠아파크, 스포츠전지훈련센터 등 해양관광레저단지를 건설하게 되며, 201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화양지구는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친환경적 개발을 위해 다양한 첨단기법들이 도입되며, 여수세계박람회 성공 개최 및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따른 관광기반시설 확충과 더불어 조각공원, 세계민속촌, 스파, 플라워가든, 산악레저월드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사계절형 종합해양관광레저단지로 조성되고 있다.

골프아일랜드

골프아일랜드는 여수시 화양면 장수리 일원 1.98km²에 1,327억원을 투자하여 18홀 규모의 골프장을 운영 중에 있으며, 커티지, 콘도 등을 건설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

마리나비치

마리나비치는 공유수면 약 20만m²를 매립하여 마리나 시설과 주변에 마린스포츠센터, 아쿠아파크 등이 들어설 계획이며, 수려한 해양경관이 양호한 해안을 따라 숙박시설 용지를 계획하여 5성급 고급호텔과 휴양콘도 등 숙박시설이 들어선다. 그리고 해안을 조망할 수 있는 완만한 경사로 형성된 구릉지 지역에 18홀의 골프장을 계획하고 그 주변으로 숙박시설 및 상가시설 등이 조성된다.

포레스트밸리

포레스트밸리는 북동측의 산림지역으로 여러 능선과 계곡들을 활용하여 문화체험관, 음식거리, 미니어쳐파크 등을 갖춘 세계민속촌, 바데풀, 로마식 온천탕, 폭포탕, 해수 치료, 마사지 등의 스파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며, 자연스러운 휴양 체험을 할 수 있는 식물원과 세계의 정원 등을 갖춘 플라워가든이 조성되어 가족단위의 휴양객들에게 다양한 꽃으로 볼거리를 제공하게 된다.

힐탑

힐탑은 산악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동절기까지 훈련이 가능한 각종 연수시설, 스포츠전지훈련 시설 등 교육·훈련시설 위주로 조성된다. 산 능선을 따라 지형여건을 감안하여 훈련을 위한 숙박시설을 배치하고, 해안경관이 양호한 능선부에 편익시설로 전망레스토랑 등의 상가 및 조각공원이 조성된다.

마운틴탑

마운틴탑은 다도해 조망권이 가장 뛰어난 곳으로 조망권의 장점을 십분 활용하여 하늘공원과 연계한 전망타워와 케이블카 시설을 배치하여 단지전체의 전망과 해양경관을 감상할 수 있게 개발된다. 그리고 봉화산 정상 능선부에 산책로 및 휴게공간이 조성되는데, 기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기 위해 산책로 주변에 수목을 식재할 계획이다. '마운틴탑'은 '마리나비치'와 '포레스트밸리'를 케이블카로 연결시켜주는 정상부의 정거장 역할로도 활용 된다. **GFEZ**



- 규모-9.99km²
- 사업비-14,435억원
- 개념-관광·휴양 기능

· 남해안 관광벨트의 거점으로
관광·레저 기능 유치
· 관광·스포츠, 휴양 기능 유치

규모-27.86km² / 사업비-37,664억원 / 개념-생산기능

- 철강 등 기반산업 관련 공장유치
- 여수공항 및 컨테이너 부두의 활성화 유도 기능 유치

철강 · 석유화학 등 최적의 산업 Cluster 구축

울춘지구



울춘지구는 동북아 항만물류의 중심지인 광양항과 단일공장 조강능력 세계 1위의 POSCO 광양제철소, 석유화학제품 생산량 세계 5위의 여수국가산단, 50년간 부지를 임대로 제공하는 울춘 자유무역지역이 인접해 있어 글로벌 수준의 연관산업 클러스터 구축이 가능한 뛰어난 입지연건을 갖추고 있다. 현재 국내유수의 조선업체를 비롯한 철강관련 기업들이 기 입주하고 있으며, 기계부품, 전자부품, 중소조선업, 철도차량 정비 및 관련업을 유치하는 등 노동집약형 고부가가치 산업단지 조성 활성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울춘지구 산단별 사업개요

구 분	울춘Ⅰ산단	울춘Ⅱ산단	울춘Ⅲ산단
조 성 면 적	9.17km ²	3.79km ²	9.76km ²
사 업 기 간	1994~2015년	2010~2020년	2016~2020년
주 요 추 진 사 항	· 분양실적 : 4.88km ² (80%) · 입주기업 : 88개업체	· 호안축조 : 23.5km · 준설토 : 47백만m ³	· 개발계획수립용역('04) · 사업시기에 맞춰 세부계획 수립
분양/임대가	· 울춘Ⅰ산단 분양가(m ² 당) 139,226원		

투자환경

- **편리한 교통망**
 - 도로 : 호남, 남해고속도로에서 7.0km 거리, 순천 - 완주간 고속도로 4.0km 거리
 - 영암 - 순천간 고속도로 3.0km 거리, 국도 17호선대체우회도로 인접
 - 철도 : 울진역(전라선)에서 5.0km 거리
 - 공항 : 여수공항에서 6.0km 거리
 - 항만 : 울진 I 산단 전용부두 : 2선석(2만톤급 접화부두, 3만톤급 철재부두)
 -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 29선석(50,000톤급), 5선석(20,000톤급)
- **풍부한 용수**
 - 주암댐(7억톤)계통 광역상수도에서 39,000m³/일 공급
- **다양한 원자재**
 - 세계최대의 광양제철소에서 철강제품 생산 공급
 - 여수석유화학단지에서 합성수지 등의 기초소재 생산
 - 풍부한 부존자원(고령토, 규사, 규석 등) 생산
- **우수한 산업인력**
 - 광주, 전남의 대학과 대학원에서 연간 45천명의 고급인력 배출
 - 실업계 고교, 전문직업훈련소, 사설직업훈련소에서 연간 20천명의 기능 인력 배출
 - 도내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이 연계한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센터 운영
- **주변산업단지**
 - 광양국가산단(광양제철소), 여수국가산단(석유화학), 삼일자원비축 산단(유류 등 공급)
 - 광양항 컨테이너부두(물류, 원자재 등 반·출입)

광양만권의 중추적 생산기지와 지역혁신거점 허브, 울진 제 I 일반산업단지

울진 제 I 일반산업단지(이하 '울진 I 산단')는 총 9.17km² 규모로 개발하고 있으며, 1994년 착공 이후 금년 5월까지 공정율 89%로 산단조성 8.0km²를 완료하고 연말까지 0.92km²를 추가 완료할 예정이다. 산업단지 분양률은 80%로 분양대상면적 6.16km² 중 4.88km²가 분양되었으며 2015년까지 조성사업 및 분양을 완료할 계획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울진 I 산단은 주변에 형성된 산업단지의 장점과 쾌적한 배후여건, 풍부한 전력과 용수, 완벽하게 구비된 도로 교통망, 풍부한 경험으로 축적된 양질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지역혁신거점 허브로 집중 육성되고 있다.

울진 제II 일반산업단지

울진 II 산단은 해양수산부 광양항 유지준설에 따른 준설토 투기장 건설 후 산업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울진 II 산단은 2020년까지 여수시 울진면, 소라면, 중흥동 해면 일원에 총사업비 9,269억원을 투입하여 3.79km²를 개발할 계획이다. 2010년 7월 산업단지 및 항만배후단지, 컨테이너 부두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개발을 추진하는 개발계획이 승인되어, 2010~2020년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유치업종은 기계, 전자·전기산업, 기계산업, 비금속광물 등이며 순산업용지의 76%에 대해 입주수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0년 9월 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사업참여의향사 간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2012년 5월 특수목적법인 울진 제2산업단지개발(주)를 설립하였고 2013년 4월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이 승인되어,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을 추진하여 2015년 하반기부터는 공장용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울진 제III 일반산업단지

울진 III 산단은 여수시 울진면 일원에 계획하고 있는 울진 I·II 산단의 중간지역으로 I·II 산단 활성화 후 민간 및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울진 III 산단은 2016~2020년까지 총사업비 13,555억원을 투입하여 9.76km²를 조성해 1차금속, 조립금속, 기계장비, 석유화학물산업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활동 보장, 울진자유무역지역

울진 I 산단 내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국내기업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해 0.34km²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였다. 2013년 5월 현재 6개 기업이 운영 중에 있다. 특히, 자유무역지역은 입주기업이 무관세, 조세감면, 저렴한 임대료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되기 때문에 화물의 보관·하역뿐만 아니라 집·배송, 가공, 조립 등 고부가가치 물동량을 창출함으로써 성장의 가도를 달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임대기간은 50년(연장가능)이고 임대료는 연간 480원(㎡)이며, 입주절차는 입주허가신청서(산업통상자원부) → 입주허가 → 임대계약체결 → 공장설립 순이다. 그리고 입주자격은 수출을 주목적(매출액의 50% 이상)으로 하거나 외국인 투자기업(투자금액 5천만원 이상)으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100 이상 소유)으로서 제조업종의 사업자나 수출입거래를 주목적(총 거래물량 중 50% 이상)으로 하는 도매업자, 국제물류의 원활화, 지역개발 등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입주시킬 수 있는 기타 제조업체 사업자이다. **GFEZ**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방안

순천대학교 무역학과 교수/광양만권발전연구원 연구소장

장 홍 훈

최근 스위스 로잔에 위치한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이 세계 60개국을 대상으로 한 '2013 국가경쟁력'에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22위로 평가되었다. 특히, 미국이 1위, 스위스가 2위, 홍콩이 3위로 평가되었으며, 중국은 21위, 일본은 24위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가 54위로 평가되어 앞으로 크게 개선되어야 할 분야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크게 개선되었으나, 외국인 투자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지 못하는 이유는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고, 고임금에 노사 분쟁과 협력관계가 불안정하는 등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의 경쟁력이 낮기 때문이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 가능지역이 외국인 투자지역(단지형, 개별형),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각종 산업단지 등으로 복잡하게 구분되어 있으며, 이들 지역에 투자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이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각종 세제, 인센티브 등의 혜택들이 대동소이해 차별성이 부각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직 단지조성이나 인프라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금융업 등의 분야 등에서 대부분의 외국기업들은 수도권을 선호하고 있다. 아직도 외국기업들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충청도를 기준으로 그 이남지역에 투자를 꺼리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외국기업들을 우리나라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전남지역으로 유치하기 위한 획기적인 요인이 별로 없다는 게 전남지역의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9년 동안 국내외 자본 120억\$(FDI 8.5억\$) 및 133개 기업 유치, 약 3만



신재생에너지 분야나 로봇산업, 우주항공산업 등과 같은 한 개의 타겟 분야를 선정하여 한 개의 기업 투자유치로 산업클러스터 조성이 가능한 큰 외국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광양항의 배후단지에도 투자가 유치되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광양항이 발전해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도 동반하여 활성화 될 수 있다.

여명의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GFEZ 에 FDI를 유치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광양만권의 경우 석유화학산업이나 철강산업은 이미 산업클러스터가 구성되어 있어 이를 기반으로 하는 연관기업을 신규로 유치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분야나 로봇산업, 우주항공산업 등과 같은 한 개의 타겟 분야를 선정하여 한 개의 기업 투자유치로 산업클러스터 조성이 가능한 큰 외국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이는 소규모 수십 개의 기업유치도 중요하겠지만 한 개의 큰 외국기업을 유치한다면 수십 개의 협력업체들의 자동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광양항의 배후단지에도 투자가 유치되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광양항이 발전해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도 동반하여 활성화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투자가 유치된다면 GFEZ 활성화뿐만 아니라 광양항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 사항인 투자 인센티브도 분야별로 상세히 분석하여 얼마를 투자하면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어야 한다. 특히, 해외에 투자유치 활동을 할 때 타겟 기업을 선정하여 미리 이 기업이 GFEZ에 투자했을 경우 초기 투자비를 비롯하여 제품 생산에서 판매까지의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유·무형의 효과 등을 분석하여 제시한다면 아마도 외국인 투자자의 마음을 한번 정도 더 움직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투자유치도 중요하지만 유치에 앞서 개발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GFEZ PHOTO NEWS

Gwangyang Bay Area Free Economic Zone Authority

GreZ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 01 GFEZ, 제 59회 조합회의 임시회 개최
- 02 GFEZ, 기업사랑 자문관 위촉
- 03 GFEZ, 울촌자유무역지역관리원 (주)리테크 MOA 체결
- 04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순천시와 업무협약 체결
- 05 「GFEZ와 광양시 상생·융합 간담회」 개최
- 06 GFEZ, 2012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 07 농촌일손돕기
- 08 식품위생업소 특별교육



Gfez



〈전라남도〉

전남 동남아 무역교류단 1천 172만 달러 수출계약 체결

조미김 · 친환경농약 등 9개사 말레이시아 · 태국서
인기몰이

전라남도는 지난 5월 24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태국 방콕에 무역교류단을 파견, 현지 바이어와 수출 상담을 통해 총 1천172만 달러의 수출계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무역교류단에는 화장품, 선박용 도금파이프, LED조명, 연막소독기, 친환경 농약, 비료 등 공산품 기업 5개사와 조미김, 해조국수, 떡볶이, 함초분말 등 식품 기업 4개사가 참가했다. 참가업체는 중소기업진흥공단 현지 민간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업체들의 도움을 받아 시장성 조사를 3차례 추진, 이를 바탕으로 현지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는 품목과 도내 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있는 신규 기업을 우선 선발했다. 업체 선정 이후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남지역본부에서는 현지 민간 네트워크를 통해 최종 90개 바이어를 발굴했으며 참가 기업이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해 최소한 3회 이상 사전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통역과 이메일 번역을 지원했다. 무역교류단이 출발하기 전에는 참가 기업을 대상으로 바이어 응대 상담 요령, 시장 환경, 경쟁국가 및 시장성에 대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해 업체 스스로 상담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했다. 이처럼 사전에 진행된 일련의 프로그램에 따라 1대 1 현지 방문 상담과 집합 상담을 함께 추진해 완도물산(조미김) 540만 달러, 우딘(화장품) 100만 달러, (주)자연과미래(친환경 농약 · 비료) 145만 달러 등 총 1천172만 달러 수출의 MOU를 체결했다. 이 중 완도물산은 상담 일정을 초과해 다음날 오후까지 상담을 진행한 결과 현금 지불 조건으로 주당 40피트(FT) 컨테이너 1개씩을 50주에 걸쳐 공급하기로 현지 바이어와 계약하고 6월 2일부터 선적을 시작하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 송경일 전남도 경제통상과장은 “말레이시아, 태국 모두 한류에 따른 국내제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 지속적인 시장 개척이 필요하다”며 “이번 무역교류단의 수출 계약이 실제 선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적극 지원하고 시장 다변화를 위해 바이어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수출을 확대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GFEZ**

〈경상남도〉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천적업계 세계 1위 네덜란드 기업과 MOU 체결

농업인 교육서비스 질 향상 기대

천적을 이용한 식물병해충 방제분야 세계 1위로 알려져 있는 네덜란드 코퍼트(Koppert)사가 경상남도농업기술원(원장 최복경)과 전략적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천적을 이용한 친환경적 방제 등 생물학적 방제분야에 대한 포괄적 교류와 지원을 약속했다. 지난 5월 30일 오후 4시 30분, 경남농업기술원 에이텍(ATEC)과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네덜란드 코퍼트사는 천적곤충 판매를 통해 연매출 1억 유로(약1,500억 원)를 올리는 세계 최대 식물병해충 천적 관련 기업으로,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 18개국에 해외지사를 두고 있으며, 이를 거점으로 35종의 천적관련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이다. 농업기술원 세미나실에서 가진 이번 MOU 체결식에는 최복경 농업기술원장과 아놀더스 반 더 마렐(Arnoldus van der Maarel) 코퍼트사 대표대리 등 관계관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는데, 최 원장과 반 더 마렐 대표대리의 양해각서 서명으로 체결식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었다.

이번 상호협력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으로는 코퍼트사의 축적된 천적분야 전문기술을 농업기술원 에이텍의 첨단 온실을 활용한 친환경 신선농산물 생산에 지원하고, 천적이용 작물재배 공동연구 및 국내외 기술교육에 관한 유기적 지원과 협조를 위해 상호 노력해 나갈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상호 발전을 위한 공동 세미나 및 학술회의 개최 등 상호교류와 협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경남농업기술원과 코퍼트사는 작년 11월, 천적과 관련한 기술교육을 도내 시설원에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적이 있으며,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더욱 우수한 천적분야전문가를 초빙하여 농업인에 대한 교육서비스 질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GFEZ**

〈여수시〉

여수시 산지유통종합계획 최종 선정

2019년 까지 국비와 지방비 신청 사업 추진

여수시 산지유통종합계획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실시한 서면평가와 공개평가를 거쳐 지난 5월 16일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여수시는 산지유통시설 확충 및 보완사업 신청자격을 부여받아 2019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117억원을 신청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여수시 산지유통종합계획은 농협중앙회 여수시지부와 5개 회원농협, 4개 영농법인 등 9개 조직이 산지유통조직으로 통합돼 6억 원을 공동 출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농산물 공동브랜드 통합으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로컬 푸드 운영으로 산지와 소비자간 유통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유통시설확충과 로컬 푸드 직매장 운영,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운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실정에 맞는 산지유통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농업 역량이 결집되고 시장경쟁력 강화로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산지유통 사업체계 개편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시·군별 산지유통종합계획을 수립해 관련 사업에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는 2012년부터 지역실정에 맞는 실현가능한 산지유통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GFEZ**

〈하동군〉

하동 농·특산물 미주 수출길 올라

하동녹차연구소, 녹차·매실·재첩 등 선적 ... 연구소 직접 마케팅 활동 결실

(재)하동녹차연구소(소장 이종국)는 올해 초 하동녹차연구소 가공공장이 생산한 하동녹차 티백제품을 호주에 수출한데 이어 미주지역에 하동녹차 티백과 매실·재첩 등의 농·특산물을 수출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번 수출은 하동녹차연구소와 뉴욕 KOTRA 공동주관으로 진행됐으며, 하동녹차 티백과 매실·재첩 등 총 1만 6000달러어치 미주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지난주 선적했다.

하동녹차연구소 가공공장 제품이 미주지역으로 수출된 경우는 여러 번 있었지만 녹차연구소가 직접 마케팅을 통해 미주지역으로 농·특산물을 수출한 것은 이번 처음이며,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의 결실이다. 녹차연구소는 내달 중 현지에서의 판촉행사를 통해 하동의 농·특산물을 미주시장에 대대적으로 홍보해 지속적으로 수출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판촉행사는 미국 뉴욕과 뉴저지주 릿지필드에 있는 한양마트 전매장에서 이뤄질 예정이며, 녹차제품 뿐만 아니라 재첩·매실 등도 함께 할 계획이다. 또한 녹차연구소는 녹차제품의 호주·미국 수출에 이어 내달부터 영국·일본·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 등에도 수출이 계획돼 있어 수출물량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소 관계자는 “연구소가 녹차에 관한 연구기능 외에도 녹차제품 개발, 친환경 농산물 인증, 새로운 판로개척 등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어려운 녹차 농가의 소득 향상과 군민과 함께하는 연구소로 거듭나고 있다”고 말했다. **GFEZ**

66

사람과 자연, 도시와 습지가 공존하면서 만들어낸
아름다움과 가치를 세계인이 함께 누리는 생태도시의
완성된 모습을 꿈꾼다

99

지구의 정원 순천만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구의 정원, 순천만. 사람과 자연, 도시와 습지가 공존하면서 만들어낸 아름다움과 가치를 세계인이 함께 누리는 생태도시의 완성된 모습을 꿈꾼다. 지상에서 가장 온전하게 보존된 연안습지 순천만의 꿈은 자연이 만든 정원의 역사를 그대로 간직한 채 사람과 함께 지속한다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일 시 2013. 4. 20 ~ 10. 20

운영시간

입장시간

- 평일 09:00 ~ 17:00
- 주말 및 공휴일 09:00 ~ 17:00
- 야간 연장운영일 09:00 ~ 19:00

폐장시간

- 평일/주말/공휴일 19:00
- 야간 연장운영일 21:00

순천만의 자연과 인간이 만든 미래형 정원이 조화를 이룬 새로운 정원문화,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지난 4월 20일 드디어 개막되었다. 오는 10월 20일까지 6개월 간 개최되는 이번 박람회는 개장 이후 일일 평균 관람객수가 약 4만명을 기록하고 있어 행사기간 중 목표 관람객인 400만명은 훌쩍 뛰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최초의 생태형 정원박람회인 「201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세계 유일의 연안습지인 '순천만'을 항구적으로 보존하고, 무분별한 도시 팽창을 저지하는 한편, 천혜자원을 에코벨트로 조성했다는 점에서 유럽, 일본 등의 세계정원박람회를 개최한 다른 나라들과는 차별화 된다.

이번 박람회의 주제는 '지구의 정원, 순천만. 사람과 자연, 도시와 습지가 공존하면서 만들어낸 아름다움과 가치를 세계인이 함께 누리는 생태도시의 완성된 모습을 꿈꾼다. 지상에서 가장 온전하게 보존된 연안습지 순천만의 꿈은 자연이 만든 정원의 역사를 그대로 간직한 채 사람과 함께 지속한다'이며 '자연을 가꾸는 인간, 한국의 문화가 살아 있는 순천만, 세계인이 함께 나누고 누리는 창조와 보존이 함께 한다'는 박람회의 특성을 표현하고 있다.

23개국, 83개 정원(세계정원 11개, 참여정원 6개, 테마

정원 11개)이 참가한 박람회는 크게 4개의 정원구역으로 나뉘어져 가을숲길, 나무도감원, 늘푸른 정원, 생각쉼터, 에코지오탭 등이 있는 '수목원구역', 꿈의 다리, 물새놀이터, 순천만PRT, 야생동물원, 하늘정원 등이 있는 '습지센터구역', 네덜란드정원, 독일정원, 무궁화정원, 스페인정원, 일본정원 등이 있는 '세계정원구역', 나눔숲, 생태체험교육장, 순천문학관 등이 있는 '습지구역'으로 조성되어 있고, 각 국가, 기업, 작가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주제로 꾸민 테마파크인 '참여정원'이 있다.

또한, 박람회 행사기간 중에는 각종 문화행사, 축제, 체험 및 특별프로그램이 매일 운영된다. 플라워블러썸 뷰티아트쇼, 뮤지컬, 음악회, 국악단공연, 거리공연, 토크쇼 등의 공연과 곤충체험, 생태체험, 정원체험, 플라워 페이스페인팅 등과 같은 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인 승마무료 체험교실도 월요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운영이 된다.

박람회장을 찾는 관람객들의 알찬 관람을 위해 행사 주최 측에서 권유하는 추천코스가 있다. 서문에서 출발해서 동문으로 나오는 '습지의 희망코스'와 '초록의 숨결코스'가 있고, 동문에서 출발해서 다시 동문으로 돌아오는 '세상의 풍경코스'와 '자연의 동화코스'가 있다.

순천역과 박람회장을 오가는 200번 순환버스가 오전 6시 30분부터 저녁 10시 10분까지 5대가 1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란다.

6개월간 개최되는 박람회는 계절에 따라(4~5월 7시, 6~8월 9시, 9~10월 7시) 개장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며 마지막 입장시간은 폐장 2시간 전이다. 박람회장 입장권 소지자는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낙원음성, 드라마촬영장, 순천 자연휴향림, 뿌리깊은나무 박물관 등 순천시내 5개 관광지를 무료(관광지별 1회)로 관람할 수 있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공식홈페이지(www.2013exp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Garden of the Earth
www.2013expo.or.kr

더위는 가라! 즐거움 가득!
시원한 계곡을 찾아 떠나보자!

광양의 4대 계곡

금천 · 어치 · 성불 · 동곡계곡

01 성불계곡

비교적 아담한 규모에 속하는 성불계곡은 곳곳에 평평한 바위가 많고 계곡을 흐르는 맑은 물과 대비되어 좋은 경관을 이루고, 수림이 울창하여 한여름이면 계곡을 흐르는 맑은 물과 함께 아름답고 다양한 수림은 피서지로 적격이며 가을 단풍, 겨울 눈꽃이 아름답다.

섬진강을 사이에 두고 지리산과 남북으로 마주보고 있는 백운산은 정상에서 한려수도와 광양만이 내려다보이며, 다압면 금천리로 흐르는 금천계곡과 진상면 수어저수지로 흐르는 어치계곡, 도솔봉 남쪽 봉강면으로 흐르는 성불계곡, 옥룡면의 젓줄이라고 할 수 있으며 광양읍 동천을 거쳐 광양만으로 흘러드는 동곡계곡 등 백운산 4대 계곡을 품고 있다. 그리고 백운산을 중심으로 하는 계곡들은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고 있다. 이른 봄이면 고로쇠나무의 수액을, 여름이면 시원한 피서지로, 가을이면 아름다운 단풍이 연출하는 무대로, 겨울이면 눈꽃을 즐길 수 있는 모든 이들에게 휴식처이고 국민 관광지로도 손색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백운산을 중심으로 하천이 길고, 물이 맑고 마르지 않으며, 풍광이 수려한 네 곳을 4대 계곡으로 불러오고 있다.



02 금천계곡

옛날에 선녀가 내려와 베를 짰다는 옥녀봉에서 발아래 섬진강이 굽어보이는 백운산 뒤편 능성을 따라 신비의 금천계곡이 펼쳐진다. 광양시 다압면과 하동을 잇는 섬진강 다리에서부터 강을 따라 16km 정도 섬진강의 절경을 구경할 수 있고, 차에서 내려 1km 정도 걸으면 동동과 서동으로 나뉘어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자연생태계가 그대로 보존된 금천계곡과 만나게 된다. 금천계곡과 가까운 하천리에 하동군의 화개장터와 이어지는 남도대교가 개통되어 이곳의 섬진강 관광도로변의 금천계곡은 휴양지로 크게 각광을 받고 있다.

03 어치계곡

최근에 알려지기 시작한 어치계곡은 백운산 4대 계곡 중 수심이 가장 깊고 운치가 있는 계곡이다. 7km에 이르는 계곡 곳곳에 크고 작은 폭포와 흰 빛깔이 이어지고 있고, 원시림을 방불케 하는 주변 풍광은 지리산 계곡과 견줄만하다. 물 떨어지는 소리와 산새 소리에 세상의 시름을 잊고 한 낮에도 이슬이 맺힐 만큼 시원하다는 오로대가 있다. 그리고 어치계곡은 한재~매봉~억불봉~백운사로 이어지는 자연 생태계 보호지역과 가장 접근하기 쉬운 등산로이며, '백운산 고로쇠 약수'의 공급처 역할을 하는 계곡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04 동곡계곡

백운산 정상과 정상 서편 다리봉 사이에서 발원하여 옥룡사 동백나무숲(천연기념물 제489호)림과 사적 제407호인 옥룡사지(통일신라 말 풍수지리설의 대가인 도선국사가 35년 동안 주석한 곳)를 지나고, 옥룡면을 가로질러 광양읍 동천을 거쳐 초남 앞바다의 광양만으로 흘러드는 백운산 계곡 중에서 가장 큰 계곡이다. 그리고 교통이 편리하고 폭이 넓어 가족 단위 피서지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찾는 인파도 많다. 광양의 4대 계곡을 대표하는 계곡으로 백운산의 주 등산로가 이곳에 있다. 그리고 죽림이나 동곡의 백운농장을 경위하는 억불봉 코스의 등산로, 선동마을 지나 백운사(하백운암-상백운암)를 경위하여 백운산으로 이어지는 등산로, 용문동계곡을 통하여 백운산으로 이어지는 등산로, 진틀, 병암을 지나는 등산로, 논실에서 한재 백운산으로 이어지는 등산로 등이 있다.



Dimensionally Stable Anode(DSA) 제조 전문기업

I주 KOELECTRODE

GFEZ 울촌산업단지에 위치한 (주)코일렉트로드는 2006년 3월 설립, 해외에서의 오랜 연구경험을 바탕으로 수입에 의존하던 고속도금용 전극을 국산화한 ELECTRODE 생산 전문기업으로, 산소발생용 불용성전극(Oxygen-DSA)과 염소발생용 불용성전극(Chloro-DSA)을 전문적으로 개발·생산하여, 국내외 대기업에 판매하고 있다.

특히, (주)코일렉트로드의 Oxygen-DSA는 주석(Tin), 아연(Zinc), 동(Copper) 등 제철소의 전기화학 도금 공정에 이용되는 핵심부품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Chloro-DSA는 발전소 해수설비, 폐수·하수 처리설비, 선박 평형수 처리설비 등 살균과 난분해성 물질 분해 등에 탁월한 성능과 수명을 보장하고 있다.

(주)코일렉트로드의 불용성 전극은 20년 이상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상업화된 것으로 회사 설립 이전에 이미 Oxygen-DSA의 국산화에 성공하여 산업현장에 적용해 오고 있으며, 현재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운영을 통해 기존 산소발생용 불용성전극, 염소발생용 불용성전극의 성능·수명 개선작업과 더불어 수소발생용 불용성전극 등의 다양한 산업 환경조건에 최적화된 불용성전극을 개발하고자 노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NT기술을 이용한 유·무기 하이브리드 코팅제 개발을 통한 단열 코팅제, 내마모 코팅제, 절연 코팅제 등 여러 산업분야에 적용 가능한 기술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산업현장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금년에는 신규공장을 설립, 생산설비와 인력을 확충하고 제품 제조공정의 효율성과 생산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는 등 현재가 아닌 미래를 지향하는 NT 전문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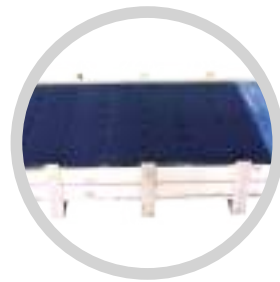


061)723-8389 www.koelectrode.com

66

기업연구소 중점육성을 통한 고객중심의 미래지향적 기업
기술경쟁력을 목표로 하는 연구기업

99



촉매전극사업



환경 · 에너지사업



하이브리드코팅사업



2013년 7월 광양항 항로 현황

※ 선사 및 운영사의 자료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자료 : 여수광양항만공사

터미널별(항차수/주)

HSGT	KIT	KEC
32	28	19

요일별(항차수/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0	11	10	11	10	13	14

방향별(항차수/주)

북미	중남미	유럽	중동	동북아	동남아	아프리카	러시아
7	1	6	4	36	22	1	2

선사별(항차수/주)

한진해운(12)	머스크라인(8)	장금상선(6)	흥아해운(4)	현대상선(6)	고려해운(9)	STX팬오션(5)	남성해운(5)
APL(1)	SITC(3)	Co-Heung Line(1)	완하이라인(2)	양명라인(2)	범주해운(2)	동영해운(2)	EAS(2)
TS라인(1)	PIL(1)	CMA-CGM(1)	차이나쉬핑(0)	HDS LINE(1)	에버그린(1)	시노트란스(1)	NYK(1)
충청해운(1)	MSC(1)	동진상선(1)					

기항 항구별

북미	Tacoma(1)	Seattle(3)	Vancouver(2)	LA(3)	LB(2)	Okland(5)	Dutch Harbor(1)	Portland(0)
	Tacama(1)	Prince Rupert(1)						
유럽	Hamburg(2)	Rotterdam(5)	Felixstowe(1)	Odessa(2)	Thamesport(1)	Valencia(1)	Zeebrugge(1)	Antwerp(1)
	Gothenburg(1)	Constanta(1)	Ambarli Port(1)	Izmit(2)	Canakkale(1)			
중남미	Lazarocardenas(1)	Balboa(1)						
중동	Surabaya(0)	Karachi(2)	Jebel Ali(2)	Port Qasim(0)	Babdar Abbas(2)	Jakarta(5)	Dubai(1)	Abu Dhabi(1)
	Khor Fakkan(1)	Dammam(1)	Colombo(1)	Bahrain(1)	Pipavav(2)	Nhava Sheva(2)		
일본	Tokyo(5)	Yokohama(8)	Osaka(7)	Hakata(6)	Nagoya(5)	Kobe(8)	Niigata(7)	Moji(3)
	Yokkaichi(1)	Akita(3)	Naoetsu(3)	Hibiki(1)	Kanazawa(1)	Sakaimitato(1)	Yokkaichi(1)	Tomakomai(4)
	Hamada(1)	Sendai(1)	Hamada(1)	Toyama(1)	Shimizu(3)			
중국	Hongkong(34)	Yantian(11)	Shanghai(34)	Xiamen(7)	Ningbo(27)	Xingang(9)	Qingdao(19)	Dalian(12)
	Huangpu(1)	Shekou(10)	Zhngjagang(1)	Tianjin(1)	Yantai(1)	Taichang(1)	Nanjing(1)	Chiwan(2)
	Lianyungang(4)	Shenyang(1)	Fuzhou(0)	Shantou(0)	Nansha(2)			
동남아	Singapore(24)	Tanjung Pelepas(8)	Leam Chabang(6)	Bangkok(5)	Portklang(9)	Keelung(9)	Keelung(9)	Kaoshiung(10)
	Manila(3)	Davao(1)	Taipei(2)	Pasirgudang(2)	Haiphong(7)	Hochimihn(8)	Penang(2)	Taichung(1)
아프리카	Tema(1)	Lagos(1)	Douala(0)	Durban(0)	Capetown(1)	Cotonou(1)	Port Tangier(1)	
러시아	Vostochny(1)	Vladivostok(1)						



대한민국 제조 · 물류 · 첨단산업의 최적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GFEZ)을 아십니까?

문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투자기획팀) 김재근 주무관
Tel : 061-760-5562 / FAX : 061-760-5711 / E-mail : kimjk0811@korea.kr

광양항



갈사만산업단지



울촌산업단지



해룡산업단지

○무한한 개발잠재력

- 광양만권내 여수 · 광양국가산업단지, POSCO광양제철소 등 소재
- 울촌 · 해룡 · 갈사만산업단지 등 경제자유구역내 3개 산업단지 조성 · 분양 중
- 해양플랜트 기업인 대우조선해양(주) 입주 확정 (갈사만산업단지, 20만평)

○천혜의 입지여건

- 인근 광양제철소의 후판생산 (200만톤/년)으로 획기적 물류비 절감
- 풍부한 전력 · 용수, 분야별 전문인력, 쾌적한 배후도시 등 산업인프라 구축
- 업종 · 기능별 다양한 산업단지 조성완료 (전국 14.7%)
- 저렴한 부지제공 (139천원/㎡, 울촌 I 산단)

○편리한 교통인프라

- 광양항의 안정적인 항로 및 원활한 물류처리 능력 (16선석, 548만 TEU)
- 여수공항, 사천공항이 30~40분 거리에 위치
- 남해 (부산~광주), 전주~광양, 대전~통영, 목포~광양고속도로 5분 거리
- KTX (순천 · 진주), 경전선, 전라선 연결

GFEZ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광양만권 투자유치 상담예약 신청서

광양만권 투자정보를 알고 싶으십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의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기업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을

방문하여 친절한 투자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미래와 번영을 함께하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항상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성명			
기업명(업종)	()		
직위(책)	()		
연락처	사무실.	휴대폰.	FAX
이메일			
주소			

· 상담 희망일시 : 2013년 월 일 시

· 상담 희망장소 :

· 상담 희망내용 :

(필요시 기록)

2013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 투자상담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팩스(061-760-5711)** 또는 **이메일(kimjk0811@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투자기획팀) 김재근 주무관 (T. 061-760-5562 F. 061-760-5711) www.gfez.go.kr



F1
Formula 1®

2013 KOREAN
GRAND PRIX

2013 FORMULA 1 코리아 그랑프리

10. 4(금) ~ 6(일) /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티켓판매처: 옥션티켓, G마켓티켓, 공식홈페이지(www.koreangp.kr) / 구매문의: 1588-3448, 061-288-5152

"지역민에게 사랑받는 F1이 되겠습니다."

티켓가격

-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선도사업으로 F1이 시작되며, 2013년부터 해남 구성지구가 본격 개발됩니다.
· 향후 10년간 1조 1037억 투자, 생산유발효과 10조 7,706억원, 고용 유발효과 11만여명
- F1대회는 손실을 훨씬 초과하는 직접적인 유무형의 파급효과가 나타납니다.
· 대회기간 중 관람객 389억 지출효과, 1,760억원 경제 파급효과, 2천여명 고용창출
- 경주장(KIC)이 지역민의 문화·여가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 국내 유일 국제규모 커피 경기장, 오토캠핑장, 생활 야구장 등 운영
- F1세트를 활용한 모터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본격 가동되었습니다.
· 2013 ~ 2016(4년간) 786억 투입 '차부품 고급 브랜드화 연구개발' 사업 추진
- 중앙정부가 관심을 가지게 되어 F1에 대한 재정지원이 증가하였습니다.
· 대한민국 국극 상송 등 국가발전에 기여, 국비 등 100억원 확보

등급	좌석명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차입금
R	백인그랜드스탠드	20,000	340,000	720,000	890,000
S	스탠드 A	15,000	260,000	480,000	600,000
A	스탠드 C, D	10,000	120,000	200,000	-
B	스탠드 B, E, F, G, H, L	5,000	80,000	120,000	-

할인 혜택

- 3월말까지 40%, 4월말까지 30%, 5월말까지 20% 할인이 실시됩니다.
- 15세 미만 청소년,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국가유공자는 50% 할인가에 혜택이 주어집니다.

2013 FORMULA 1 KOREAN GRAND PRIX

The F1 FORMULA 1, FORMULA 1, FORMULA 1 WORLD CHAMPIONSHIP, GRAND PRIX KOREAN GRAND PRIX are registered trademarks of Formula One Licensing B.V. a Formula One group company. All rights reserved.



www.gfez.go.kr



- 세계 최대의 POSCO 광양제철소 인접
- 한국 최대의 여수석유화학 산업단지 및 하동화력발전소 인근
- 다양한 세제혜택과 인센티브 제공
-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로 무한한 개발 잠재력 보유

Gfez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우)545-808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100 www.gfez.go.kr

Tel : 061)760-5114 / Fax : 061)760-5711, 5713

하동사무소 : 우) 667-804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중앙로 115

Tel : 055)880-6463 / Fax : 055)880-6470